

원주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은

원주시민들이 한 해 한 권의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정서적 일체감을 형성,

문화적으로 성숙하고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구현해 나가기 위한 풀뿌리 독서 운동입니다.

원주

원주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은 2004년 시작 된 운동으로

원주 시민 모두가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으로

원주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도시



원주 한 도시
한 책 읽기

2004-2018

한 * 책

15년동안 우리는

가족과 이웃, 직장동료와 한 권의 책을 같이 읽고 소통하는 순간을 그려왔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한 권의 책을 중심으로

서로의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통해

읽기

소통하는 원주를 희망합니다.

원주 한 도시  책 읽기 운동

함께 하는 단체

원주시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원주교육문화관
문막교육도서관
원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주)원주투데이신문사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사)전국독서새물결모임
원주시속가능발전협의회

2018
원주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원주 한 도시 한 책 읽기운동을 통해 책 속에 숨겨진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읽고, 생각하고,
나누면서 우리 원주가 더욱 더 아름다워지길 희망합니다.

선정합니다!

01

다양한 분야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도서선정위원회에서 올해의 도서를 선정합니다. (남녀노소 모든 시민이 함께 즐기고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책, 원주에 맞는 적합한 책으로 선정합니다)



지원합니다!

02

모든 시민이 생활 가까이에서 책을 쉽게 만나고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원주지역의 모든 도서관과 원주 한도시 한 책 읽기 운동본부를 통해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진행합니다!

03

올 해의 도서와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합니다. (도서관 프로그램, 작가와의 만남, 북콘서트, 글쓰기대회, 토론대회,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2018년 한 해 동안 진행합니다.)



운영합니다!

04

모든 프로그램은 다양한 원주지역 단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운영됩니다. (원주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은 원주시,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원주교육문화관, 문막교육도서관, 원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주)원주투데이신문사, 원주교육지원청, (사)전국독서새물결모임,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총 9개 단체가 함께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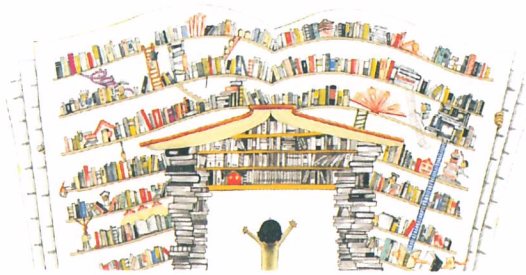
원주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의 가장 큰 힘은 원주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공지는 해당 행사 전에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블로그 <http://blog.naver.com/wonjuonebook>
홈페이지 <http://www.wonju21.or.kr>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033)747-3649 / wjagenda21@hanmail.net

2018 선정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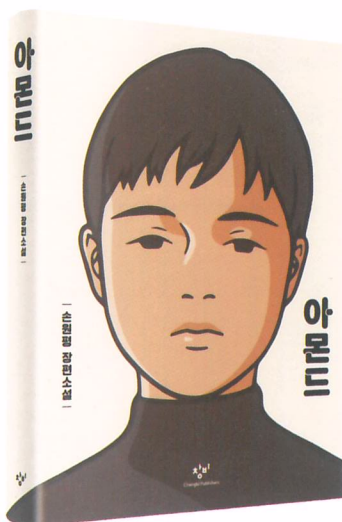
2018 한 도시 한 책읽기 운동 선정도서

아몬드 | 창비 | 손원평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주인공 '윤재'가 가족을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지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 겪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소중한 일인지 되돌아보게 되는 소설이다. 한국형 영어덜트 소설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으로 평가받는 '아몬드'는 결핍과 상처가 있는 주인공들의 고군분투 성장기를 통해 공감과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책을 펼치는 순간
손모가지를 끊기 전에는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책,
공감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
용서가 가장 큰 치료약임을 보여 주는 책,
감히 학생들을 게임으로부터 구제하여
2시간 동안 붙잡아 둘 수 있는 책,
부모님의 사랑에 대하여 자녀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책,
아몬드



한번 넘어져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안다. 옆 사람의 격려와 공감이 얼마나 많은 힘을 주는지. 이 작품을 선정한 이유는 많은 시민들이 재미있게 읽으면서 “용서와 공감”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활동과 토론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아몬드는 사랑과 공감을 가진 말하기와 들어주기가 결국 사람을 바꾼다는 결론을 매우 설득력있게 전달하고 있다.

화투불을 붙여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안다. 다 타버린 재 속에 있는 불씨가 남은 숯은 그 하나로 불이 붙지 않는다. 불씨가 있는 숯을 하나 하나 겹쳐 놓고, 그 위에 장작을 놓으면 어느새 불이 붙어 있다. 이 한 권을 한 명, 두 명 읽어 공감과 용서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한다면, 우리 시 원주는 공감에 대하여 더 많이 이야기하고, 큰 화투불로 커져 우리 모두를 변화시킬 것이다.

박탄 (2018 도서선정위원장)
도서선정위원(박탄, 강무홍, 김복순, 김소영, 이영우, 이유진, 이인희, 장다혜, 최성미)



손원평 (소설가, 영화감독)

1979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강대학교에서 사회학과 철학을 공부했고 한국영화아카데미 영화과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했다.

2001년 제6회 『씨네21』 영화평론상을 받았고, 2006년 제3회 과학기술 창작문예 공모에서 「순간을 믿어요」로 시나리오 시놉시스 부문을 수상했다. 「인간적으로 정이 안 가는 인간」 「너의 의미」 등 다수의 단편영화 각본을 쓰고 연출했다.

『아몬드』는 제10회 창비청소년문학상 수상작으로 작가의 첫 장편소설이며, 장편소설 『서른의 반격』으로 제5회 제주4·3평화문학상을 수상했다.

손원평 작가가 원주시민에게 전하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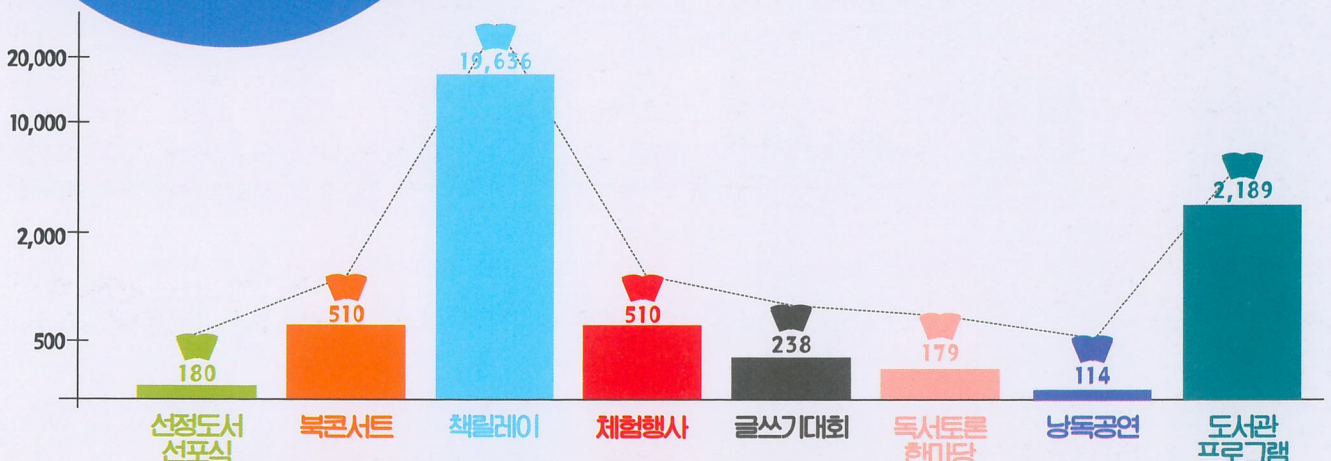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아몬드>를 쓴 손원평입니다. <아몬드>가 원주시의 한 도시 한 책 읽기에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저는 몇 년 전 봄, 석 달 기량 원주, 토지문화관에 머물렀던 때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직 겨울의 끝에 겹쳐있는 3월초의 싸늘한 공기를 맡으며 원주에 도착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로 문화관 안에 머물렀지만 시내나 대학도서관에도 종종 나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보낸 3월초부터 5월말까지의 시간은 자잘한 사건과 새로운 사람들, 작지만 특별한 기억들과 뒤섞여 각인된 소중한 추억입니다. 제가 이런 기억을 미소 지으며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감정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저는 인간이 가진 본연의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 여러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모여 <아몬드>라는 작품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아몬드>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소년이 또 다른 이상한 소년을 만나 함께 변화해가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라면 사람들은 이 두 소년을 죽어있는 씨앗 같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무리 물을 주고 햇볕을 쬌어도 싹틀 수 없는, 가능성 없는 씨앗이라고 단정할 것입니다. 위험하다고 피하고 낙인찍어 격리해야 안전하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문학 안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라면 절대로 이입할 수 없는 사람의 편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에서라면 결코 응원할 수 없는 사람을 온 힘을 다해 응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감정의 힘, 이입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덕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면서는 그렇게 울고 웃는 우리가, 현실에서는 어쩐지 조금 덜 느끼고 조금 더 많이 냉정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경주마처럼 달려가기만 하는 현대사회에서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겠지요.

<아몬드>가 감정이란 어떤 것이고, 그 감정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물음을 주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아이들, 청소년들이 보다 더 사랑받고 보다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미진하고 부족한 작품은 사실 그런 연유로 쓰였습니다. 원주의 아이들, 청소년들도 더 웃고 더 사랑하고 사랑받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참여성과



원주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주요프로그램

책 릴레이

학교 및 단체나 기관, 동아리, 회사 등 10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선정도서를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시민들에게
도서를 대여합니다. (연중 진행)

문의 :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033)747-3649 / agenda21@empas.com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북콘서트&작가와의 만남

선정도서를 연극과 낭독 등으로 만나보는 북콘서트와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책을 더 가깝게 느끼고 이야기 나눕니다.
(5월~6월, 10월 진행)

독서토론대회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토론탐회를 진행합니다.
찬·반의 경쟁적인 토론이 아닌 협동과 상생의 토론방식으로
진행되어 건전한 토론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10월~11월 진행)

글쓰기대회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선정도서를 읽은 원주시민들이 선정도서를
주제로 글쓰기대회를 진행합니다. 운문, 산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책을 느끼고 소통합니다.(10월 진행)

책 체험행사

책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행사를 진행합니다.
가족과 함께 참여하여 체험하는 동안 책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쑥쑥 자라납니다.
(5월~6월, 10월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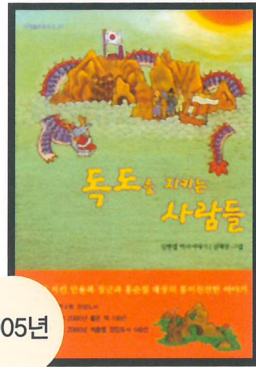


2004-2018
원주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선정도서



2004년

줌살 한 알
(최성현 / 도술)



2005년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
(김병렬 / 사계절 출판사)



2006년

배려
(한상복 / 위즈덤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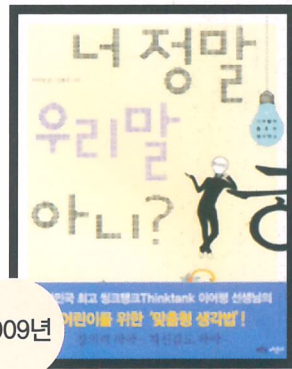
2007년

초정리 편지
(배유안 / 창작과 비평사)



2008년

숨 쉬는 도시 꾸리찌바
(안순혜 / 푸른자전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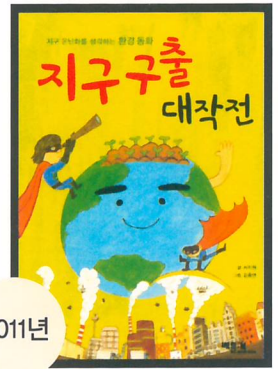
2009년

너 정말 우리말 아니?
(이어령 / 푸른숲)



2010년

1940년 열 두 살 동구
(손연자 / 계수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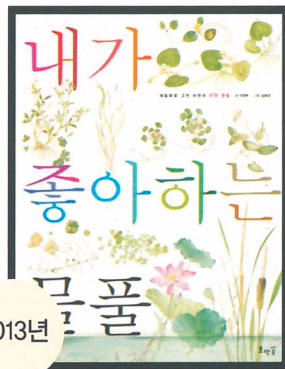
2011년

지구구출대작전
(서지원 / 배틀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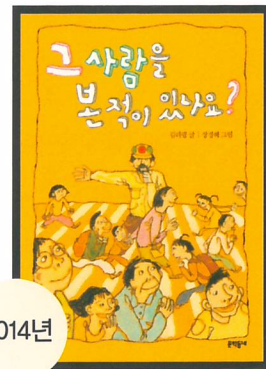
2012년

우리 그림이 들려주는 사랑이야기
(이영대/현암사)



2013년

내가 좋아하는 물품
(이영득 글, 김혜경 그림 / 응진출판사)



2014년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김려령 / 문학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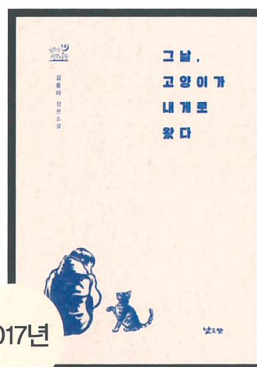
2015년

코끼리아줌마의 햇살 도서관
(김혜영 글, 최현묵 그림 / 비룡소)



2016년

소리질러 운동장
(진형민 / 창비)



2017년

그 날 고양이가 내게로 왔다
(김중미 / 낮은산)



2018년

아몬드
(손원평 / 창비)